

어느 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 보경 스님 지음/권윤주 그림/불광 펴냄/1만 6천원

"고양이의 눈동자를 보면 꼭 선승의 눈 같다. 결코 먼저 말하지 않고 오히려 묻는 듯하다. 내가 뭔가 물어보려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너는 하고 되묻는 것이다. 그래서 고양이의 눈을 보고 있으면 내가 나를 보는 착각이 들기도 한다. 자기관조 내지는 마음의 빛을 돌이키는 회광반조(廻光返照)의 법문이다."

2017년 겨울, 12년간 도시 사찰 주지 소임을 마치고 산중 사찰로 내려간 보경 스님. 그리고 깊은 산중에 거짓말처럼 나타난 한 고양이. 겨울 한철, 스님이 고양이를 바라보고 고양이가 스님을 바라본다. 삶은 혼자도 좋고 둘이어도 좋지만, 함께하는 만큼 다른 무엇을 느끼게 되는 것, 그 내면의 소소한 기록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올바른 참선, 마음의 본 성품 여의지 않는 것



청화 스님의 불교핵심교리 설법

청화 스님 지음/상상출판 펴냄/1만 4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현대 한국불교 선지식으로 추앙받는 청화 큰스님이 직접 불교 핵심교리를 설명한 책 〈청화 스님의 불교핵심교리 설법〉이 발간됐다. 이번 책은 스님이 생전에 직접 법문한 것을 원음 그대로 옮긴 것으로 쉽고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책은 총 5부로 구성됐다. 제 1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와 제 2부 '사성제와 팔정도', 제3부 '십이인연법', 제 4부 '반야심경 설법', 제 5부 '일승삼보'로 구성돼 있으며 부록으로 청화 큰스님의 스승인 금타 대화상의 '반야심경 약해'를 함께 수록했다.

제 1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는 청화 큰스님이 2000년 8월 6일 곡성 성륜사 대웅전서 설법한 내용이다. 여기서 청화 스님은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와 견지해야 할 방향에 대해 강조한다. 이 한 편의 법문에 불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온전히 담겨 있다. "본래 참선이란 것은 우리 마음의 본 성품을 여의지 않는 것, 이것이 참다운 참선이란 말입니다. 화두를 의심하건 또는 화두를 의심하지 않건 또는 염불을 하건 염불을 하지 않건 그런 것은 그런 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마음 자세가 불심 자리를 안 여의면 그때는 다 참선이란 말입니다."

스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가장 쉽고 빨리 성불할 수 있는 공부법으로 염불 참선을 말한다.

"가장 쉽고도 빨리 성불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른바 염불 공부란 말입니다. 우리의 관념이 잘못된 선입 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염불은 정도가 낮은 하근 중생이 하는 것이고 참선은 고급, 보다 차원이 높은 고도한 분들이 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용수 보살이란 제 2의 석가가 하필이면 그와 같이 차원 높고 분별있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우주 자체가 부처 아님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고 깊고 더 행복스러운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본 이름을 외운다, 내 생명의 본래 이름을 외우는 것이고 또는 우주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우주의, 또는 그 이름 자체가 모든 공덕을 모두 원만히 갖추고 있습니다. 무생청정보주명호(無生淸淨寶珠名號)라.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 참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 마음이 근본성품을 여의지 않으면 염불을 해도 그것이 바로 참다운 염불 참선입니다."

사성제, 팔정도 등 불교핵심 교리 설명
2000년 8월 6일 성륜사서 설법한 내용
원음 그대로 옮겨… 쉽고 간결히 정리

청화 스님은 이어 가장 쉬운 공부법인 염불선을 통해 진정한 수행을 계속할 것을 불자들에게 당부한다. "금생에 닦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매라, 삼매 가운데도 제일 쉬운 삼매가 염불삼매입니다. 염불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삼매에 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삼매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가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몸이 아프다 합시다. 몸이 아프다가도 염불삼매에 척 들어서 우리 마음이, 마음이나 몸이나 훨씬 더 가벼워지고 또는 앞에 부처님의 한도 끝도 없는 광명을 도인이 채 못 되어도 분명히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런 광명을 본다고 생각할 때에 어디가 몸이 아프더라도 그냥 즉시에 나아 버립니다.

우리 중생은 부처님 법만 따르면 천하에 살기가 참 제일 쉬울 것인데 우리가 어째서 하필이면 부처님 법을 안 따르고 세속에서 조금 배운 것 가지고서 그것만 좋다고 따른단 말입니다."

청화 스님은 이어 사성제와 팔정도, 십이인연법 공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삼보는 모두 아는 바와 같이 불보(佛寶), 법보(法寶), 승보(僧寶)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보배가 삼보인데, 그 가운데서 법보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법보는 사제, 팔정도, 십이인연법, 육바라밀 법문을 위주로 해서 일체 경전의 법문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불교인들은 비록 어려운 것은 좀 모른다 하더라도, 물론 쉬운 것 가운데도 어려운 것이 들어 있지만, 우선 사제, 팔정도, 십이인연법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사성제와 관련해서는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어라 해도 도제(道諦) 즉 말하면 도(道)입니다. 이것이 멸(滅)에 이르는 길 아닙니까. 본래 생사가 없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는 번뇌의 습기(習氣)가 있는지라 마땅히 우리는 도를 닦아야만 비로소 열반에 이르는 것입니다. 닦되 역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상을 두고 닦을 것이 아니라, 상을 두지 않고 무위법으로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을 두면 무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계행을 지킨다 하더라도 상을 두면 유위법이고 상을 두지 않으면 무위법입니다. 물론 우리는 저절로 상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만, 상이 없다는 확신을 자꾸만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청화 스님은 〈반야심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한다.

"부처님 경전은 무슨 경(經)이든 소중하지 않은 경이 없습니다만 〈반야심경〉은 가장 짧은 동시에 불교의 모든 철학을 거기에 함장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반야심경〉을 전부 다 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우주에는 불성만 있는 것입니다. 중생은 그걸 못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을 많이 외운다 하더라도 그냥 외우기만 해서는 별로 공덕이 없습니다. 우리 관념상 천지우주는 텅 비어 있는데 다만 불성만이 충만해 있구나라고 이와 같이 느끼면서 관세음보살님이나 아미타불이나 외셔야 합니다. 참말로 있는 실상은 방금 말마따나 텅 비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비어 있는 것인데 다만 허무하게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실상 그것은 청정미묘한 부처님 광명이라는 말입니다. 참말로 우리가 그런 광명, 부처님의 불성과 하나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빠른 공부 법인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그때는 자기 스스로도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더 예뻐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화두참선과 위빠사나를 하나로 꿰면?



이뭣꼬

법산 편저
운주사 펴냄
2만 8천원

불교에는 다양한 수행법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북방불교에서는 화두참선 수행법이, 남방불교에서는 위빠사나 수행법이 오랜 시간 이어져 왔다. 그런데 간혹, 이 둘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놓아버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심지어 화두참선은 대승불교의 수행법으로, 위빠사나는 소승불교의 수행법으로 우열을 매기기도 한다. 정녕 그런가? 이 책은 출가 후 오랫동안 참선 수행과 위빠사나 수행을 겸행한 저자가, 자신의 수행경험과 공부를 바탕으로 이 두 길을 하나로 꿰어 보여주는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수행 안내서이다.

나는 누구인가?" 불교에서 자기의 참 모습을 아는 일은, 존재의 근원에 대한 성찰이자 세상에 나온 내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도 큰 일이다. 그래서 일대사(一大事)라고 한다.

이 의문에 정면으로 맞닥뜨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과 노력이 수행이고, 이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해탈이다.

그리고 '이뭣꼬?'는 오랫동안 참선수행의 대표적 화두로 수행자들에게 참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하지만, 이미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선사들의 법문이나 경론을 안내 삼아 수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막막하기 그지없다. 화두참선은 구체적,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쓰여졌다. 저자는 자신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위빠사나와 화두참선이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 개념 등에서 간극이 있지만, 이 둘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알아차림'과 '이뭣꼬'를 융합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수행 방법을 보여 주는데, 이를 통해 수행의 입문(기초)부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세세하게 이끌어준다. 이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수행의 지침이 되어온 여러 경전과 논서들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현대 뇌과학의 다양한 이론과 연구결과 등을 도입하여 자신이 제기하는 수행 방법의 올바름을 입증한다. 자신의 실제적 경험과 경론에서의 근거, 현대과학의 실증적 뒷받침, 이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참선은 이론이나 사상이 아닌 실참(實參)이다. 그래서 알음알이를 극도로 경계한다. 달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결국 '불립문자 교외별전'을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손가락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손가락이 정확하게 달을 가리키고 있어야 손가락을 따라서 달을 볼 수 있다. 가리키는 손가락이 중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많은 수행서들이 그저 달 주위만 그리는 경우가 많았다. 수행의 초보자나 입문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은 이 점을 철저히 배격한다. 오로지 수행의 기초부터 깊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행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강을 건넌 뒤의, 일반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뜬구름 잡는 법문이 아니라 강을 건너는 과정을 체계적이고 상세히 엮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각 설명마다 칼라로 된 다양한 그림과 사진, 도표 등을 붙여 놓았는데, 이는 '문자 속에 그림이, 그림 속에 문자가' 있는 도리로서, 읽는 이로 하여금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친절함이다. 크고 작은 그림(사진)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으니 내용과 함께 새겨보면 좋을 것이다. '읽으면서 보고, 보면서 읽는' 수행서, 이것이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이다. 이처럼 이 책은 현재 참선 수행에 정진하는 수행자들에게는 자신의 수행길과 수행법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점검하는 수행의 참고서가, 일반 불자들에게는 기나긴 수행의 길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이끌어주는 수행의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김주일 기자

화두참선과 위빠사나는 다른 게 아니다!
'알아차림'과 '이뭣꼬'의 조화!

이뭣꼬



수행의 기초부터 깊은 단계까지 이끌어주는 수행 안내서!

오랜 실참 경험과 경론에서의 근거, 현대과학을 통한 실증 등, 수행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가르침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수행 참고서! 수백 장의 사진과 도표를 통해 '읽으면서 보고, 보면서 읽는' 편한 책으로 편집!

법산 편저/신국판 양장/544쪽/값 28,000원

금강경 이해의 길잡이, 금강경 해설의
최고봉이라 일컬어지는 『금강경오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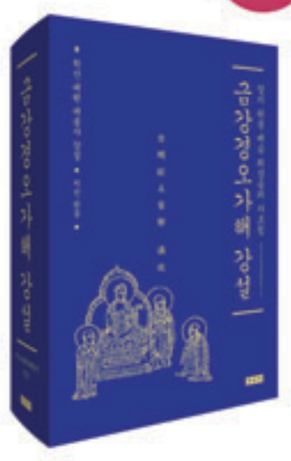
금강경오가해 강설

2쇄

학림사 오등선원의 〈학산 대원 대종사〉 강설

-경의 요처마다 선적, 교학적 안목과 현대적 시선으로 해설을 덧붙여 바른 안목으로 이끌어준다.

『금강경오가해』는 규봉종밀, 육조혜능, 부대사, 야부도천, 예장종경 등 다섯 명안 조사의 금강경 주석을 모아 엮은 것이다. 여기에 해동의 함허득통 스님이 설의를 붙이고, 학산 대원 스님이 강설을 덧붙였다.



학산 대원 대종사 강설/신국판 양장/912쪽/값 3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